

세상에는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부드럽고 따뜻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지만, 날카롭고 차가워 보이는 철에도 아름다움이 존재합니다. 은빛의 메탈 자체로 멋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하고, 악기와 건축물, 장식품으로 탈바꿈하여 아름다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2019년 <세아가족>에서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철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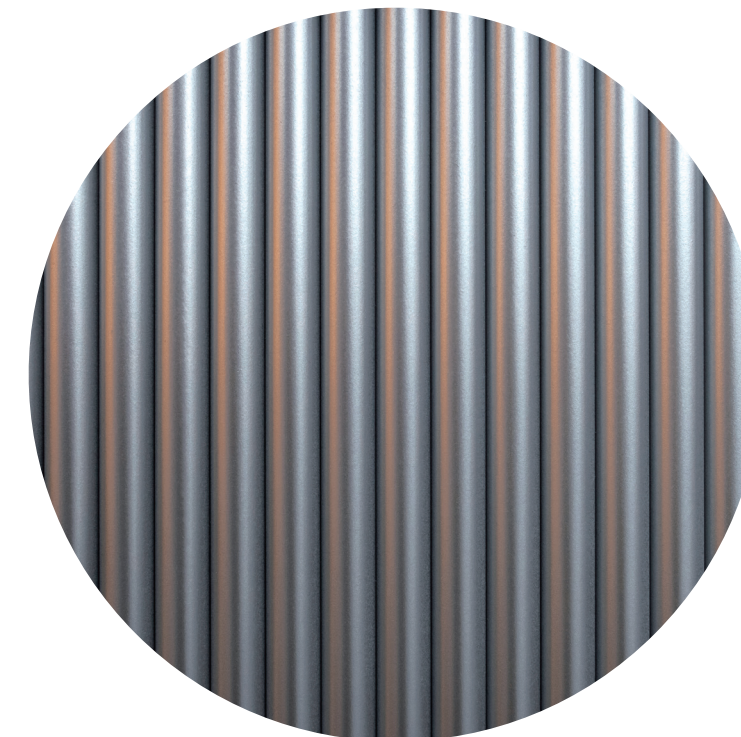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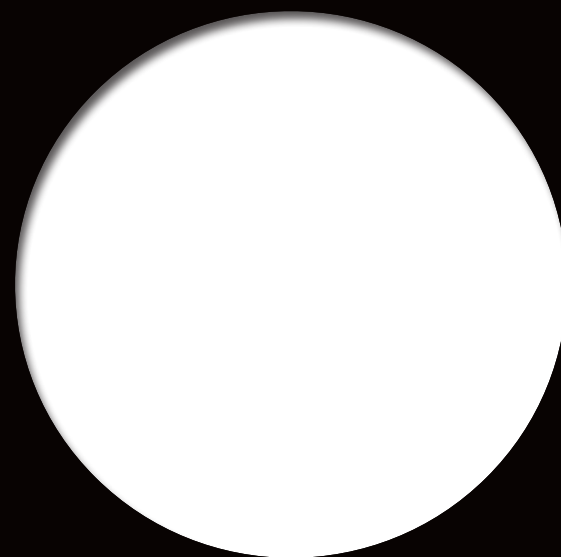
세아가족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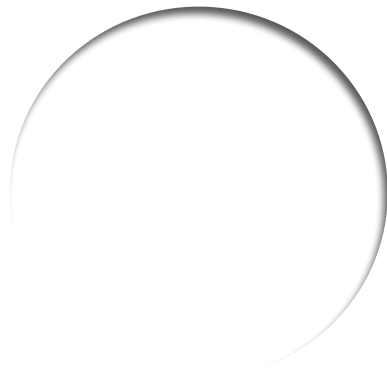




소리와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체



우리는 파이프로 연결된다



우 리 는 파 이 프 로 연 결 된 다



파이프오르간은 아름다운 소리를, 강관은 세상에 필요한 물자와 자원을 전달합니다.
각자 전달하는 물질은 다르지만, 파이프를 통해 세상에 기여하고
무언가를 전달하는 역할은 같습니다.
이번 호 <세아가족>은 파이프를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세아가족〉은 세아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사보입니다. 〈세아가족〉에 소개할 만한 세아인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부서, 화목한 세아 가족을 추천해주세요. 또한 상담이 필요한 고민거리나 자랑하고 싶은 반려동물이 있다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모두 함께 소통하는 〈세아가족〉을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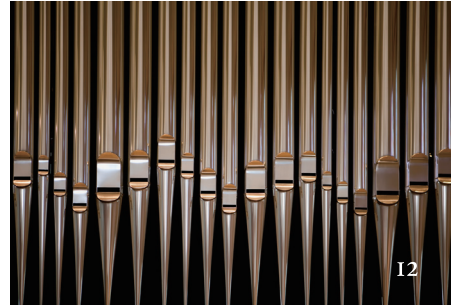
문의

커뮤니케이션팀 이유진 대리
yujin.lee@seah.co.kr
02 6970 0093

〈세아가족〉사보 기자

노승미 세아제강자주 재무관리팀 (서울)
이병준 세아제강 업무지원팀 (포항)
강태현 세아제강 업무지원팀 (군산공장)
장호영 세아제강 업무지원팀 (순천)
정민수 세아제강 업무지원팀 (창원)
황미라 세아제강 영남영업파트 (부산)
이정준 세아베스틸 기획팀 (서울)
정보람 세아베스틸 업무지원팀 (군산)
허지윤 세아창원특수강 기획팀 (서울)
박소현 세아창원특수강 업무지원팀 (창원)
최성희 세아씨엠 업무지원팀 (군산)
류상우 세아특수강 경영기획팀 (서울)
여환진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 (포항)
이상은 세아특수강 업무지원팀 (충주)
고소영 세아 FS 인사기획팀 (서울)
안광수 세아 FS 업무지원팀 (평택)
정재원 세아 ESAB 재경팀 (창원)
강미화 세아메탈 부산영업팀 (부산)
김다현 세아 M&S 경영지원팀 (서울)
김진우 세아 L&S 재경기획팀 (서울)
이상진 세아엔지니어링 경영지원팀 (대전)
박솔향 세아네트웍스 인재개발팀 (서울)

CONTENTS



- 04. **프롤로그**
근현대사를 담은
우리나라 최초의 파이프로르간
- 06. **세상과 함께**
파이프로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다
- 오르가니스트 박은혜 교수
- 14. **세아와 함께**
파이프로 세상을 연결하다
- 세아제강 포항공장 품질경영팀 김기홍 과장
- 20. **세아 포커스 I**
강철 같은 의지와 신념을 품고
치열한 전장에서 승자가 되자
- 이순형 회장 신년사
- 24. **세아 포커스 II**
위기 속 해답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
- 2019 세아그룹 신년회의



- 28. **철의 장인**
압연기능사의 자부심으로
- 세아창원특수강 대형압연팀
김진수 안전기술주임
- 34. **글로벌 리포트**
철강 산업 중심지에서 세아를 알리다
- 세아베스틸 독일사무소
- 38. **팀플레이**
10년의 노력이 결실을 맺다
- 세아 M&S 세아업적상 생산부문 금상 수상팀
- 44. **최과장의 심리상담**
세아인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 48. **세아 패밀리**
하나에서 둘, 둘에서 셋이 되는 기적
- 세아 L&S 군산영업팀 박성림 대리 가족
- 52. **도구 열전**
엇갈린 두 개의 날이 창조하는 일상
- 가위
- 54. **세아 뉴스**
- 55. **독자 엽서**
- 56. **사우 동정**
- 57. **내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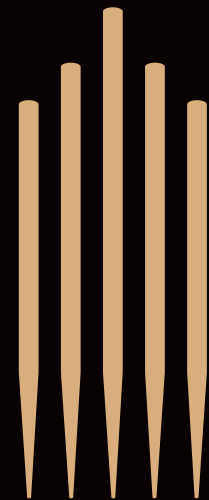


발행일 2019년 2월 20일(통권 379호) 발행인 천정철 발행처 세아홀딩스 주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0층
기획 세아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 02 6970 0093 디자인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사진 Studio KENIN

* 외부 필자의 글은 〈세아가족〉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현대사를 담은 우리나라 최초의 파이프오르간

Pipe Organ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밑 정동길엔 아직 남아있어요,
눈덮힌 조그만 교회당’

이문세의 노래, ‘광화문 연가’의 한 소절이다. 가사에 나오는 눈 덮힌 조그만 교회당은 정동제일교회(구, 정동교회)로, 1897년 미국 선교사인 헨리 아펜젤러가 설립했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교회’라는 종교적인 의미와 함께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의 중심지’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된 곳이기도 하다.

파이프오르간은 지금도 주변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악기다. 최초 설치 당시에도 아시아에 3대 밖에 없을 정도로 희귀한 악기였다.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시기에 아름다운 음악으로 국민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함이었을까? 독립운동가 고(故) 김란사 여사는 재미동포들에게 의연금을 건어 1918년 정동제일교회 벨엘에배당에 우리나라 첫 파이프오르간을 설치했다.

파이프오르간의 ‘몸통’에 해당하는 송풍실(Wind Box)은 독립운동 비밀 장소로 활용됐다. 입구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는 구조라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지하 송풍실에서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젊은이들이 만세운동에 필요한 각종 유인물을 제작했고, 3·1운동 독립선언서와 이후 발행된 지하 독립신문 등 각종 독립운동 문서를 등사(謄寫)했다.

현재 정동제일교회 벨엘에배당에 있는 파이프오르간은 그 당시 악기가 아니다. 안타깝게도 6·25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소실되었고, 2003년 원형 모습으로 복원됐다. 복원 사업에는 세아그룹과 고(故) 이운형 회장님이 경비 전액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년 전, 거대한 크기와 웅장한 선율로 선조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 파이프오르간은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 후손들에게 존재만으로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파이프로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다

오르가니스트 박은혜 교수

파이프오르간은 건반, 파이프, 바람을 이용해 연주한다.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는 악기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연주 실력은 물론 곡 해석 능력을 갖춰야 한다. 오르가니스트 박은혜 교수는 자신의 음악 세계를 견고히 다지기 위해 1년 365일을 매일 같이 연습한다. 그리고 많은 대중에게 파이프오르간의 아름다운 선율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 - 최초의 파이프오르간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2단 손건반으로 제작했다.
- 2 - 파이프의 갯수는 과거보다 늘었지만 보이지 않도록 배치해 겉모습은 그대로 재현했다.
- 3 - 파이프오르간을 연주하는 박은혜 교수

우리나라 최초의 파이프오르간과 만나다

박은혜 교수는 연세대 교회음악과, 독일 뮌헨 국립음대 대학원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면서 오르가니스트의 입지를 다졌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박 교수는 오르가니스트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2009년 정동제일교회 오르가니스트 겸 음악위원장으로 부임했고, 이때 우리나라 최초의 파이프오르간과 만나게 된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연주해온 파이프오르간에 남다른 애정을 표하며, 그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동제일교회 베넬예배당 파이프오르간은 우리나라 최초의 파이프오르간이에요. 유관순 열사의 스승이자 독립운동가 고(故) 김관사 여사가 재미동포들에게 의연금을 건여 1918년 설치했죠. 파이프오르간의 송풍실은 독립운동 당시 3·1운동 독립선언서와 지하 독립신문 등을 등사하는 비밀장소로 활용되었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현재 파이프오르간은 1918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6·25 한국전쟁 때 파이프오르간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부서졌고, 2003년 원형 모습으로 복원됐다. 시대가 변하면서 과거 사람의 힘으로 작동했던 풀무를 전력 모터로 작동하고, 스톱과 파이프가 늘어나 규모는 커졌지만 형태만큼은 예전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세상을 향해 파이프오르간을 연주하다

박 교수는 처음 정동제일교회에 부임할 당시를 회상하며 입을 뗐다.

“제가 처음 정동교회에 왔을 때는 복원된 파이프오르간이 귀하다는 이유로, 연주하지 않고 보관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파이프오르간 악기 특성상 초대형 공연장이나 교회·성당에서나 볼 수 있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대중들에게 파이프오르간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할 기회를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인근 주민과 직장인을 위해 매주 월요일에는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는 정오음악회를, 목·금에는 오르간 연주회를 진행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하던 사람들도 지금은 다들 좋아하고 기다리는 하나의 이벤트가 되었답니다.”

더불어 파이프오르간·국악 합주팀 ‘정남’과 오르간양상블 ‘오르투스’ 활동을 하며 파이프오르간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 교수의 행보는 오르간계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보통 파이프오르간 연주자가 하늘을 보고 연주하기 때문에 관객들은 연주자의 뒷모습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 악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향하는 악기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관객과의 소통이 중요해졌고 세상을 향해 연주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래서

파이프오르간 대신 전자오르간을 들고 나가기도 하고, 파이프오르간 한 대에 4명의 오르가니스트가 함께 연주하기도 하고, 국악과 콜라보 공연을 펼치기도 했죠.”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특히 독일에서 선보인 파이프오르간 & 마우스 오르간 생황의 순회공연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처음에 만류하던 사람들도 지금은 박 교수의 열혈 팬이 되어 많은 지지와 격려를 해주고 '파이프오르간 전도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38년의 세월이 바탕이 되다

파이프오르간은 다른 악기들과 달리 여러 개의 건반이 층을 이루고 수십 개의 스톱(음전)과 페달이 설치되어 오르가니스트가 혼자 연주하지만 다양한 음색을 뽑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선율을 동시에 연주할 수 있어 오케스트라 못지않은 무궁무진한 울림을 표현할 수 있다. 박 교수는 파이프오르간을 ‘나쁜 남자’에 비유하며 다루기 어려운 악기라고 말했다.

“하늘 아래 같은 파이프오르간은 한 대도 없어요. 공간에 맞게 제작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찍어내는 여느 악기와는 달라요. 파이프오르간은 ‘만든다’ 표현하지 않고 ‘짓는다’고 표현하죠. 때문에 파이프오르간을 연주하려면 그 악기만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박 교수가 파이프오르간을 시작한 지 올해로 38년. 지난 세월 힘든 적도 많았지만, 지금은 파이프오르간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한다.

“연주하면 할수록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오히려 짐과 같았어요. 20년 정도 지나니 ‘힘겹게 생각하지 않고 삼시 세끼 밥 먹듯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이후부터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고, 오히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연주할 수 있었어요.”

박 교수에게 ‘파이프오르간’은 신이 주신 선물이자 달란트, 그리고 자신이 세상을 위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연주와 가르침을 통해 세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수년간 실로암 안과 병원에서 연주 봉사를 하고 사회 취약계층 청소년을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또 그녀는 고(故) 김란사 여사와 선대의 음악인들을 뒤이어 정동제일교회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하는 것에 감사하며, 세아그룹에도 감사를 표했다.

“파이프오르간 복원 사업에 세아그룹과 고(故) 이운형 회장님이 경비 전액을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원을 통해 역사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히 생각합니다. 덕분에 저도 연주하면서 100년 전 선조들이 느꼈을 전율을 되새기고 이를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4 - 파이프오르간을 연주하는 손
5 - 복원된 정동제일교회 파이프오르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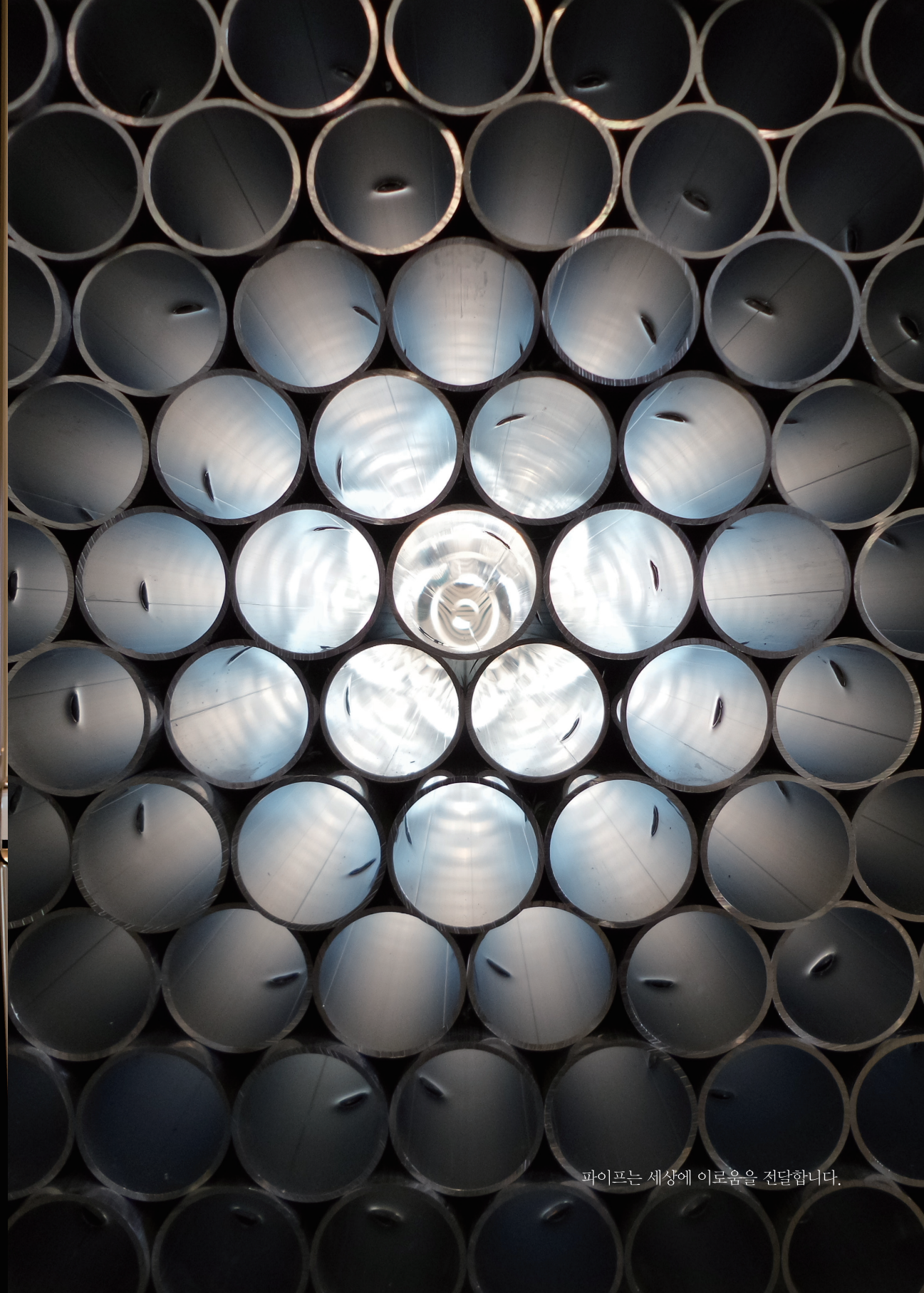
“파이프오르간은 ‘만든다’ 표현하지 않고 ‘짓는다’고 표현하죠. 때문에 파이프오르간을 연주하려면 그 악기만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5



파이프오르간은 세상에 아름다운 소리를 전달하고,



파이프는 세상에 이로움을 전달합니다.

파이프로 세상을 연결하다

세아제강 포항공장 품질경영팀 김기홍 과장

탄소 용접 강관은 원형관, 각관, 도금강관 등 다양한 형태로 생산된다. 쓰임새 역시 송유관, 유정관, 열교환기용, 배관용, 구조용 등 우리 생활의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 1위 강관제조기업 세아제강은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과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준수해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고품질 강관을 제조·공급하기 위해 품질 관리에 여념이 없는 포항공장 품질경영팀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는 강관

강관은 건축 기초소재부터 사회 간접자본 시설까지 널리 사용되며 산업발전을 이끌어 왔다. 특히 천연자원 채굴 현장, 건축 구조물 등 다양한 산업 현장과 보일러, 자동차, 기계 부품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사용된다.

특히 국내 NO.1 강관 제조 회사인 세아제강은 탄소 용접 강관, 스테인리스 용접 강관, 티타늄 튜브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포항공장은 연간 120만 톤을 생산하는 탄소 용접 강관이 주요 제품이다. 김기홍 과장은 탄소 용접 강관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주었다.

“탄소 용접 강관은 탄소강 재질의 철판을 구부려 이음매를 용접하는 형식으로 만드는 강관을 얘기합니다. 용접 방식에 따라 전기저항용접(ERW; Electric Resistance Welding)과 잠호용접(SAW; Submerged Arc Welding)으로 나뉩니다. ERW 용접은 고주파 전류를 흘려 전기저항의 열과 압력으로 용접하는 방식인 반면, SAW 용접은 철판을 원형으로 성형한 다음 용가재를 이용해 아크열을 발생시켜 용접하는 방식입니다. 더불어 ERW 용접 강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열처리, 나사 등 후처리 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탄소 용접 강관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생활 곳곳에 사용되고 있다.

“탄소 용접 강관은 일반적으로 증기·공기·물·기름·가스 등 이송을 위한 배관용, 기계·자동차·기구·장비 등 기계부품에 사용되는 기계구조용, 토목·건축·철탑·말뚝 등 구조물에 사용되는 일반구조용 및 강관말뚝, 보일러 소관·연관·과열기관·열 교환기 등에 사용되는 보일러 및 열 교환기용, 유정(油井)의 굴착 및 채굴에 사용되는 유정용, 천연가스·석유 수송을 위한 송유관 등에 사용됩니다. 이처럼 탄소 용접 강관은 우리의 삶 속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쓰임새 역시 다양합니다.”

고품질 제품 생산을 위한 세상과의 약속

세아제강의 강관은 석유와 천연가스, 세일가스 등 자원을 수송하고, 건축 구조물의 뼈대가 되는 등 많은 압력과 무게를 버텨내며 세상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무결점·고품질 강관을 생산하는 일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일이다.

세아제강(구, 부산파이프)은 1987년 기존의 연구개발실을 확대하여 국내 강관 업계 최초로 기술연구소를 포항공장에 설립했다. 기술연구소는 선진

- 1 - 주문 제작으로 생산되는 각관
- 2 - 원형 탄소 용접 강관이 쌓여있는 모습
- 3 - 초음파 두께 측정을 하는 김기홍 과장



“파이프는 우리의 삶 곳곳에 기초 인프라를 구성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대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여 시험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 반영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고객이 주문한 특정 아이템이 개발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제강업체와 협력해 재료를 개발하고, 생산라인 설비를 보강하는 등 ‘강관 제조 기술의 요람’으로 발돋움했다. 그 결과, 전사적 품질관리운동(TQC; Total Quality Control)을 통해 품질의 균일화를 이루었고, 다양한 국제 표준 규격을 획득하면서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모든 분야에서 원칙·표준을 준수해야 무결점·고품질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고객 만족을 넘어 세상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품질시스템 업무를 맡고 있는 김기홍 과장은 쓰임새가 다양한 탄소 용접 강관의 품질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인만큼 자신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말했다.

“품질의 기본이 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품질시스템규격의 요구사항을 분석·이해하고, 우리 회사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원칙·표준 등을 수립하여 해당 부서에서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일이죠. 또한 국내 KS 표준을 비롯해 수출국에 부합하는 JIS, API 인증과 ISO 표준 규격 등 다양한 인증 업무를 수행해 고품질 강관 생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4 - 탄소 용접 강관의 품질 검사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5 - 자동화된 컨베이어 이송로를 따라 탄소 용접 강관이 이동하는 모습

파이프라는 존재가 주는 의미

김기홍 과장은 ‘세아해안기술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면서 세아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후 세아제강에 입사하면서 파이프를 통해 세상에 첫발을 내디뎠다. 한 사람의 남편이자 두 딸의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에 그에게 파이프는 고마운 존재다.

“출퇴근 길이나 주말 나들이길에 세아제강 강관을 싣고 항구로 달리는 세아 L&S 트레일러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와 마주치면 아이들에게 ‘저게 아빠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야’라고 꼭 알려줍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 잘 모르지만, 조금 크면 어떤 강관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줄 생각입니다.”

또한 김 과장은 강관이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必須不可缺)’한 존재라 말한다.

“사람의 몸은 약 120,000km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관은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하죠. 이처럼 강관도 우리의 삶 곳곳에 기초 인프라를 구성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대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철 같은 의지와 신념을 품고 치열한 전장에서 승자가 되자

이순형 회장 신년사



세아 가족 여러분! 지난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국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아무리 치열한 전장에서도 승자는 있기 마련입니다. 강철을 다루는 철강인답게 세아인 모두가 강철 같은 의지와 신념을 품고 '하면 된다'는 도전정신으로 무장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뜰히 돌파해 나갈 수 있고 마침내 승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아 가족에게 신년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온 황금 돼지해입니다. 돼지는 전통적으로 행운과 복을 상징하는 길한 동물이고, 황금 역시 재물의 대명사입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황금과 돼지가 만난 해인 만큼 새해를 맞이하는 세아 가족들의 마음속에도 희망이 가득하리라 생각합니다. 황금 돼지의 복된 기운이 우리 세아인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세아에도 긍정 에너지가 전달되어 올 한 해 잘 되길 바랍니다.

2018년 세아의 경영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해 미국의 철강 수입 할당제 전격 시행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경쟁적으로 무역 장벽을 구축하는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게다가 국내 철강 수요 산업의 장기적인 침체 영향이 더해져 시장 경쟁은 더욱 심화되었고 우리는 전방위로 악화된 경영 환경에서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경영 실적은 내실을 다지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국내외 시장환경이 경영 성적을 저조하게 만든 주요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적 부진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외부 환경에만 돌릴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찾고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패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해 아쉬웠던 경험을 거울로 삼아 올해에는 우리의 약점, 단점, 허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확실하게 바로잡으며 부단히 경쟁력과 수익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2019년 철강 산업의 전망과 세아그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9년 새해는 또 다른 '고난의 한 해'가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올해 기업의 경영 환경은 악화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철강 산업 분야는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어 해외 시장에서도 돌파구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치열한 전장(戰場)에서도 승자(勝者)는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시장이 위축되고 경쟁이 치열해져도 시장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최후의 생존자가 되고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우리는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확실해 보이는 2019년의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이란 없다'는 말처럼 극복 못 할 어려움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지고지선(至高至善)의 방편은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세아인이 갖춰야 할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힘들이지 않고 무슨 성취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라는 선각자의 말처럼, 우리는 각별한 각오와 투지로 우리를 압박하는 위기 요인과 환경에

맞서 지속가능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합니다. 이에 세아가족 여러분께 몇 가지 실천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 경쟁력을 최고로 끌어올려야만 합니다. 초경쟁 시대에서 이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 급변하는 환경에 민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변화의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장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환경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과 변화의 지향점을 현명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셋째, 고난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는 반드시 기회로 이어지는 요인과 위험이 불가피한 요인이 존재합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위험을 피해 가는 지혜를 발휘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만 하는 천재보다 행동하는 바보가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훌륭한 개선 방안이나 개혁 의지가 있다고 한들 즉각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누구의 아이디어가 더 좋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실천하느냐'를 놓고 경쟁하는 시대임을 상기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아 가족께 당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아는 근검절약과 정도경영 정신을 바탕으로 60년의 역사를 가꿔왔습니다. 지금과 같이 위중한 상황에서 '변화와 혁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지적된 작지만 많은 문제들,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큰 문제도 작은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이라도 절대로 소홀히 넘기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아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새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갑시다. 지난해 우리 세아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고객분들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정적으로 세아호를 함께 이끌어온 세아 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 새해아침

회장 이순형

위기 속 해답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

2019 세아그룹 신년회의

지난 1월 7일, 2019 세아그룹 신년회의가 세아타워 4층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세아그룹 경영진들은 어려운 국내외 시장 환경 속에서도 치열하게 노력한 지난 한 해를 평가하고, 다가오는 2019년 올 한 해에는 각 사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 예고된 위기를 돌파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발군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

올해도 어김없이 회사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을 포상하는 세아업적상과 우수한 업적을 보여준 회사를 포상하는 세아경영상 시상식이 이뤄졌다. 특히 지난 한 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발군의 노력과 성과를 보여준 임직원들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기에 더욱 뜻깊었다. 세아업적상에는 6개사에서 총 12건의 공적이 제출된 가운데, 금상 1팀과 은상 5팀이 선정됐다. 세아업적상 생산부문 금상에는 공정효율 극대화로 Molybdenum Oxide 생산성을 향상시킨 세아 M&S 김인호 차장 외 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은상에는 기술개발·영업·혁신부문 각 1개 팀과 생산부문 2개 팀이 수상했다. 이날 업적상을 수상한 총 6팀에는 상패와 함께 포상금이 전달됐다. 세아경영상에는 세아 M&S가 경쟁력 부문에 선정되었다. 세아 M&S는 2010년 세아그룹 인수 이후, 글로벌 원가경쟁력 확보 방침을 바탕으로 설비 증산 및 지속적 원가 절감을 통해 2015년 흑자로 전환



했고, 다양한 혁신 활동으로 2018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마정락 대표는 수상소감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함과 동시에 세아 M&S가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 기업으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세아의 역사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순형 회장은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상의 의미를 더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상은 혁신의 의지를 갖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며 흘린 땀과 노력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한 하나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개선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고 더 나은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의 성공을 계속 발전시켜 회사의 지속 성장 기반을 다져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용광로보다 뜨거운 청춘을 세아와 함께한 세아인

올해 3명의 임원이 새롭게 임명되었다. 신년회의에서는 신임 임원들이 지금껏 세아인으로 살아온 여정을 영상으로 담아 공개했다. 세아창원특수강 김용현 이사보는 남다른 열정으로 항상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왔고, 세아 베스틸 이용희 이사보는 ‘불량률 제로’를 목표로 품질 개선에 힘써왔으며, 세아제강 조희현 이사보는 ‘철강인의 길’을 자신의 길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왔다. 그들의 모습은 세아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나아가 세상에 영감을 주는 세아의 자부심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신임 임원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된 이후, 30년 근속 임원에 대한 포상이 이어졌다. 세아제강 홍만기 상무, 세아 베스틸 김철희 전무, 박준두 상무, 송영환 상무, 세아창원특수강 성지경 상무, 이준곤 이사, 박진만 이사, 김용현 이사보, 세아씨엠 김동규 대표, 세아메탈 박도훈 상무, 세아 L&S 장광덕 이사는 지난 30년간 근속하면서 투철한 사명 의식과 한결같은 마음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이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로 감사패와 황금 열쇠를 수여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고 올해를 다짐하는 시간

올해 신년회의에서는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과 이지용 세아창원특수강 사장이 연단에 나서 ‘세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위기 속에 기회, 변화와 도전에 대해 이야기를 발표했다. 먼저 발표에 나선 이휘령 부회장은 작년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대처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2018년 한 해의 소회를 밝혔다. 또한 전 세계 철강 생산량 그래프를 통해 앞으로 2025년까지 수요가 늘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다. 이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동할 것, 작은 것도 놓치지 말 것,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을 준비할 것’을 경영진에게 주문했다.

더불어 1980년부터 2002년까지 철강 산업의 치열한 경쟁과 IMF를 몸소 겪은 리더들이 힘든 시절을 겪어본 적 없는 대부분의 세아 직원들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방법을 전수하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해야 할 일임을 강조했다.

이어진 이지용 세아창원특수강 사장의 발표에서는

2019년 경영 리스크로 노동정책, 글로벌 무역장벽, 중국 경제 침체, 국내 성장동력 부재를 꼽았다. 이와 같은 경영환경을 극복할 전략으로, 공장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제조업의 경쟁력은 공장에 있고, 공장의 경쟁력은 QCD(Quality, Cost, Delivery)에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른 서비스(Speedy Service)의 S자를 붙여 SQCD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을 생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오고, 최선을 생각하면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는 말과 함께 2019년 세아그룹의 각 사가 항상 최선을 생각하며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연말에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는 당부로 끝을 맺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헝그리 투혼 정신을 발휘하는 2019년

“우리나라 기업들은 말 그대로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처해있습니다. 특히 철강산업 분야는 더욱 위태롭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취할 수 있는 길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별수 없이, 그러므로’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과연 우리 세아인은 어떤 길을 택하고 있습니까?’

이순형 회장은 강평을 통해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부족하지 않았나를 반성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회사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헝그리 투혼 정신을 발휘해 위기 요인과 환경에 맞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적인 관점에서 자사 경쟁력을 되짚어보면서 전방위로 시장경쟁력을 최고도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전략을 추진할 것을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신년회의를 마친 경영진들은 세아카페로 이동해 오찬을 가졌다. 한자리에 모인 경영진들은 그룹 및 계열사의 전략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희망찬 2019년을 다짐했다. ☺

- 1 - 세아경영상 수상소감을 발표하는 마정락 세아 M&S 대표
- 2 - 이순형 회장이 신임 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
- 3 - 이지용 세아창원특수강 사장이 발표하는 모습
- 4 - 희망찬 2019년을 다짐하는 오찬식



철의 장인

압연기능사의 자부심으로
세아창원특수강 대형압연팀
김진수 안전기술주임

김진수 주임이 열아홉의 나이로 특수강 회사에 입사한 지 어느덧 37년이 흘렀다. 지금의 세아창원특수강이 되기까지 회사의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다. 다양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김 주임은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왔고, 지금은 회사 안팎으로 인정받는 압연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

김진수 주임은 1982년 10월 당시 삼미종합특수강 압연부에 입사했다. 김 주임은 제강·압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입사했고, 회사에서는 그를 ‘기능사’라 불렀다. 자격증 덕분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책을 맡았다.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녀서 고등학교 때부터 금속 관련 이론을 배웠습니다. 그때 제강·압연기능사 2급 자격증을 따죠. 회사에 들어와 보니 공장에서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제가 유일했습니다. 압연기능사 덕에 남들보다 빨리 레일 전체를 맡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빨리 찾아온 만큼 우여곡절도 많았다. 김 주임이 맡은 일은 치수를 재고 조정을 하는 업무로, 원리는 간단했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 하기에는 버거웠다.

“입사 초기엔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공장 환경이 다르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를 직접 부딪히면서 알게 됐고,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몸소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설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후 김 주임은 라지 밀(Large Mill) 파트에서 압연 능력을 인정받았고, 당시 회사의 최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설비인 분괴압연 운전(Operator) 업무를 맡게 되었다.

“회사에서 처음 플랫 바(Flat Bar)를 생산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 업무인 분괴압연 운전과 동시에 플랫 바 제품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선진사의 자료를 토대로 개발에 착수했는데, 외국어를 모르니 숫자만 보고 대충 유추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결국 제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설비한 대로 결과물이 나오는 걸 보고 ‘설비는 항상 옳구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를 느끼게 됐습니다.”

수상의 영광을 동료와 가족에게

김 주임은 지속적인 품질개선 및 원가절감 활동을 통해 공구강 압연평강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 및 수출 확대에 공구강 금형산업에 크게 기여한 점을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철의 날 산업통상부장관 상을 받았다. 또한 공구강 평강 제조공정 최적화로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켜 2017년도 세아업적상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 주임에게 감화를 문자, 함께 열심히 일해준 동료와 묵묵히 지지해준 가족 덕분이라고 말했다.

1 - 안전한 일터를 위해 힘쓰는 김진수
안전기술주임의 명찰

2 - 평강 압연롤을 청소하는 모습

3 - 열간교정 과정을 확인하는 김 주임

4 - 생산설비의 핵심 분괴 압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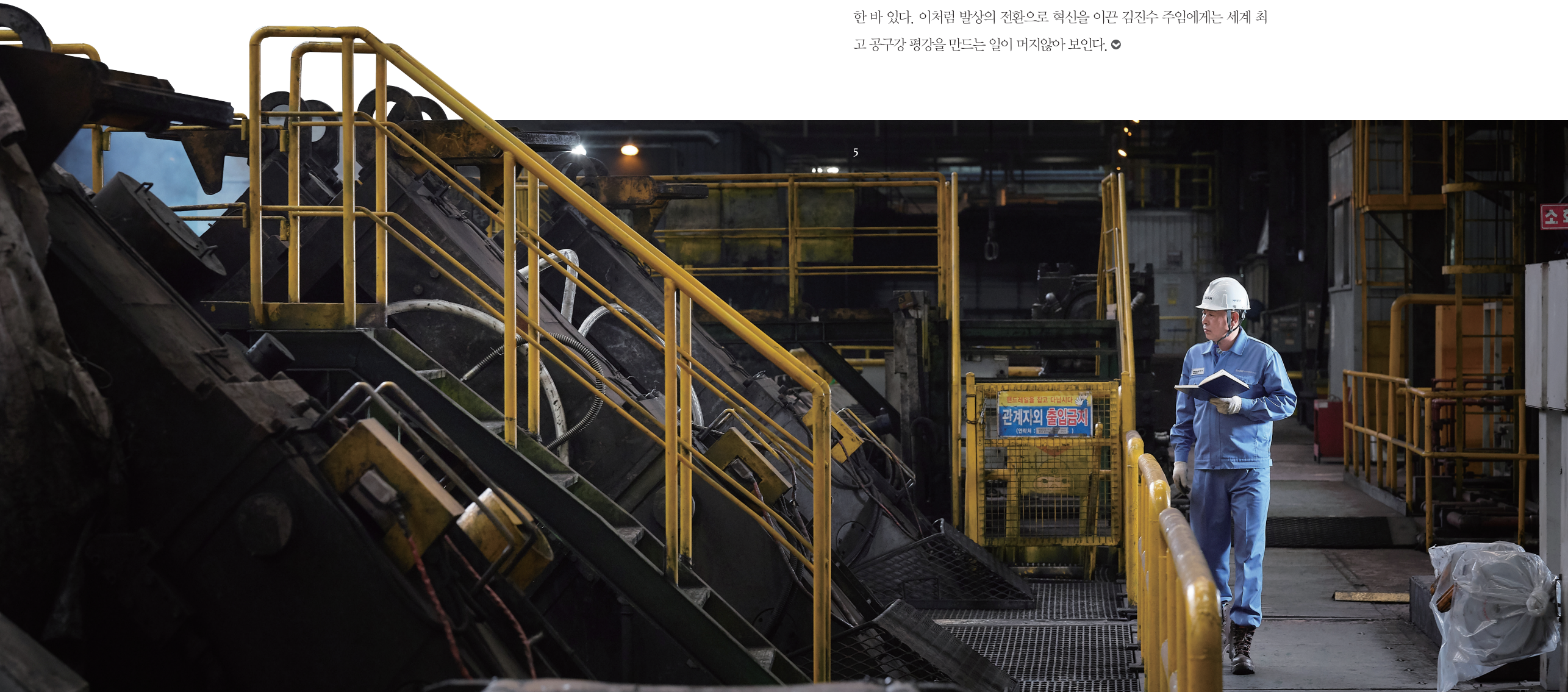
“우리 세아창원특수강은 제조공정을 최적화하여 해외 경쟁업체와 동등한 평강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설비개조와 공정개선을 위한 압연설비팀의 지원과 팀장 이하 스텝을 포함한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세아업적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지 못했겠죠. 그리고 제가 일하는 걸 묵묵히 지지해준 아내와 가족에게도 고맙습니다. 입사 이래 항상 주요 보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명절에도 출근해 본가와 처가에 가지 못하곤 했습니다. 아내가 혼자 아이 둘을 데리고, 처가가 있는 강원도까지 버스를 타고 다녔죠. 그게 아직도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세계 No. 1 공구강 평강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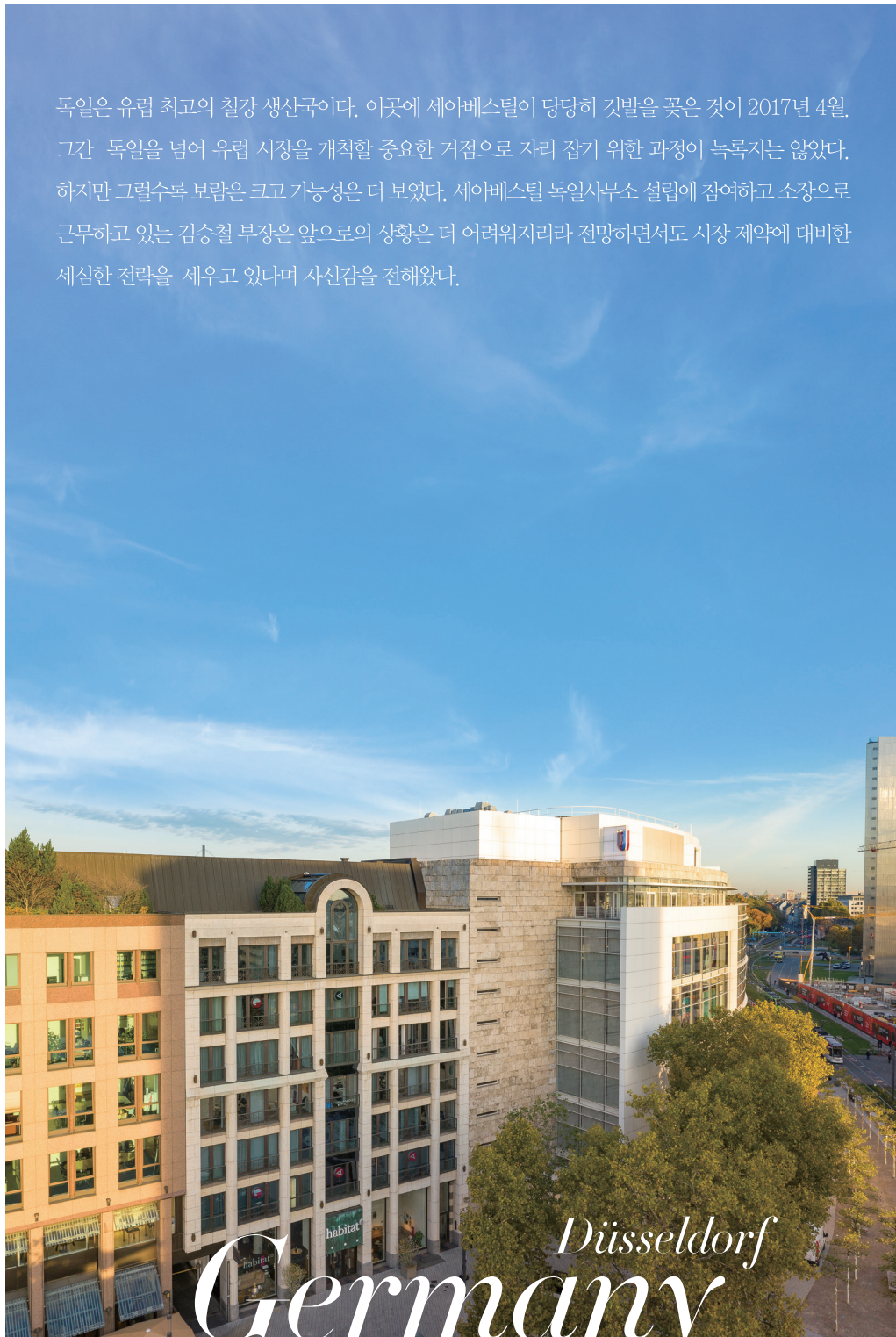
김진수 주임은 지난 37년간 특수강 회사에 근무하면서 국가기간산업에 소재를 공급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항상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일해왔다. 또한 국내 유일 공구강 압연평강 제조사로서 세아창원특수강만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에 앞으로도 공구강 평강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공구강 평강은 자동차·가전·정보통신산업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소재로, 세아창원특수강을 대표하는 제품입니다. 앞으로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켜 세계 No. 1 평강 제품을 만들어 세아창원특수강의 위상을 높이고 싶습니다.”
고합금 소재인 공구강 평강을 압연할 때 압연 부하를 줄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고온 압연을 실시하는데, 김 주임은 역발상으로 저온 압연을 실시해 로 내에서 발생하는 스케일을 최소화하고 표면품질 개선과 에너지 원 단위 개선에 기여한 바 있다. 이처럼 발상의 전환으로 혁신을 이끈 김진수 주임에게는 세계 최고 공구강 평강을 만드는 일이 머지않아 보인다. ♡

5 - CCR(Clean Comfortable Rolling) 압연기를 확인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 최고의 철강 생산국이다. 이곳에 세아베스틸이 당당히 깃발을 꽂은 것이 2017년 4월. 그간 독일을 넘어 유럽 시장을 개척할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한 과정이 기록되는 않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보람은 크고 가능성은 더 보였다. 세아베스틸 독일사무소 설립에 참여하고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승철 부장은 앞으로의 상황은 더 어려워지리라 전망하면서도 시장 제약에 대비한 세심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자신감을 전해왔다.



철강 산업 중심지에서 세아를 알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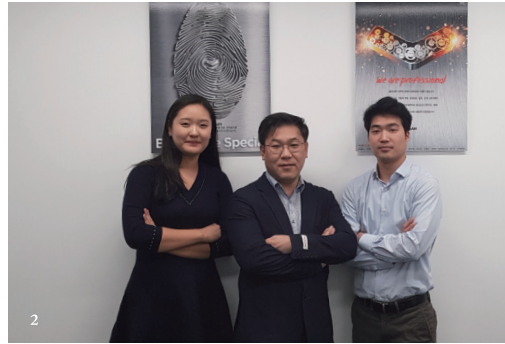
세아베스틸 독일사무소

글. 세아베스틸 독일사무소 김승철 부장

독일을 넘어 유럽 시장의 거점으로

2017년 4월에 문을 연 세아베스틸 독일사무소(이하 독일사무소)는 독일 뒤셀도르프에 있으며 세아그룹 해외 사무소 중 가장 최근에 생긴 곳입니다. 우리 사무소의 역사는 세아베스틸 파트너사 사무실의 단칸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세아홀딩스 전략팀에서 7년 이상 재직하고 세아창원특수강으로 그룹사 전입을 한 박지은 대리가 2018년 2월에 합류하면서 단칸방 신세를 처분했죠. 지금의 사무소로 이전한 것이 2018년 5월이었고, 당시 다른 회사 독일 법인에서 근무하던 김광훈 사원이 행정업무 파트너임으로 합류하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

습니다. 최근 사무실 임대 트렌드에 걸맞게 공유 오피스를 임차하여 유연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사무소는 세아그룹의 유럽 영업 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신규 시장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고객 대응력을 높여 보다 현지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물론 시장 개발이 쉽지는 않습니다. 유럽에는 이미 경쟁력을 갖춘 현지 철강사들이 존재하며 그들로부터 소재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입재, 특히 아시아산 제품에 대해 보수적인 편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개선해나가고 있지만, 유럽 제품에 비해 당사의 낮은 인지도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습니다. 철강 시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지역인 만큼 탄탄한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 제품을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세아그룹 내 특수강과 밸류 체인으로 연계된 그룹사들의 통합영업 창구로서도 역할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

최근 몇 년간 성장세를 보였던 유럽 경기는 작년을 기점으로 그 흐름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과 브렉시트, 이탈리아 재정 위기 등의 이슈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도 높아졌습니다. 물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가 저성장,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에 직면해 있죠.

철강의 주요 수요처인 자동차 산업 동향을 살펴봐도 주요 이슈의 여파가 두드러집니다. 미국이 수입차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작년 3분기에 도입된 신규 배출가스 규제제도로 일부 차량 모델 생산이 제한되면서 자동차 산업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미국발 무역 전쟁의 여파로 유럽에서도 올 2월부터 약 2년 반 동안 철강제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확정 시행할 것으로 보여 당사 제품 수출에도 기존보다 더 많은 제약이 예상됩니다.

독일사무소는 이에 대해 세심하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세이프가드 시행과 관련된 흐름을 면밀하게 관찰·분석하고 있으며 세이프가드를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을 탄탄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 비포함 제품군과 밸류 체인 개발, 비(非) EU 고객사 개발 등 고객사 다변화를 꾀하는 것이지요. 치열한 고민으로 준비를 해냈기에 올해 어려움은 분명 많겠지만 의연하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먼 타국에서 우리를 잘 모르는 고객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다면 이곳 유럽에서도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주어진 역할과 본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이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하는 것이지요. 고객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도 기본입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가치인 정직, 열정, 실력이 기본의 근원이라 봅니다. 독일사무소는 기본기로 승부하겠습니다. ☺

1 - 세아베스틸 독일사무소 로비 전경
2 - 같은 사무실에 함께 근무하는 세아창원특수강 박지은 대리과 세아베스틸 독일사무소 김승철 부장, 김광훈 사원



독일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축구, 맥주, 소시지, 나치 과거사, 베를린 장벽 등을 떠올립니다. 투박하고 거친 이미지죠. 하지만 독일은 동화 같은 마을과 고성아 즐비하고 리슬링 와인의 원산지이며 바흐, 베토벤, 바그너와 같은 음악가와 다수의 문학가를 배출한 낭만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독일은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데, 그중 하나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라인 카니발입니다. 라인 카니발은 매년 11월 11일 11시 11분에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개막식이 이날 열리는 것이죠. 라인 카니발의 정점은 사순절 이전 1주간 벌이는 축제입니다. 올해는 3월 7일에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이를 기점으로 일주일 전 목요일인 2월 28일이 '여인들의 목요일(Weiberdonnerstag)'이라 부르는 날입니다. 여자들이 낮부터 마음껏 술을 마시고 때를 지어 다닙니다. 남성의 상징인 넥타이를 가위로 자르기도 합니다. 월요일은 '장미의 월요일(Rosenmontag)'이라 하는데, 광란의 월요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라인 카니발의 백미인 시가행진을 하는 날입니다. 각종 기업과 조합, 모임들이 독특한 아이디어를 짜내어 가장행렬에 나섭니다. 이날은 가게와 회사가 대체로 휴업하고 모두 거리로 나옵니다. 특히 시사 이슈를 풍자하는 재치 있고 기발한 가장행렬은 라인 카니발을 기대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카니발 행렬을 보고 있으면 흥겹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저렇게까지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얼마 전에는 모 대기업 주재원과

대화를 했는데, 그 기업 임원분이 중요한 고객사 미팅이 있어 독일에 왔다가 갑자기 넥타이가 다 잘리는 수모를 당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날이 '여인들의 목요일'이었던 겁니다. 독일에 2~3월에 출장 오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날을 확인해주세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정도의 기간을 말하므로 매년 부활절에 따라 카니발 날짜가 바뀐답니다. 넥타이 단속 잘하시고, 카니발식 인사 'Hello!'로 재치 있게 인사하는 것 잊지 마시길! 유럽 여행을 고려하시는 세아가족이 있다면 유서 깊고 매력적인 독일도 여행 리스트에 넣어 보시라고 적극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독일사무소의 조언과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10년의 노력이 결실을 맺다

세아 M&S 세아업적상
생산부문 금상 수상팀

세아 M&S 생산팀과 설비관리팀은 지난 10년간 공정효율 극대화를 통해 몰리브덴 옥사이드(Molybdenum Oxide)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그 결과, 생산팀과 설비관리팀 7명의 팀원은 2018년도 세아 업적상 생산 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Time

오랜 시간 노력이 결실을 맺다

몰리브덴은 철강 재료의 조미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일반 철은 금방 부식되지만, 몰리브덴을 첨가하면 내열성이 좋아지고 강도 및 내부식성이 강화된다. 몰리브덴은 스테인리스강, 합금강, 특수강 등 다양한 철강 제품에 사용되는데, 특히 스테인리스강에 많이 들어간다. 우리 주변에서 보는 고급 소재인 스테인리스 스틸에는 몰리브덴이 0.3~6.1% 정도 들어있다.

세아 M&S 생산팀과 설비관리팀은 지난 10년간 몰리브덴 생산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1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해온 생산팀 박명호 선임이 지난 발자취에 대해 이야기했다.

“2012년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기존 생산량의 2배를 늘렸습니다. 이후 생산량이 조금씩 늘어났고, 2015년부터는 부산물 투입장치, 벤투리 스크러버, 신규 ESP 등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소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10년간



최소 5%에서 최대 20%까지 매년 생산량을 늘려왔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개선 아이디어를 통해 최대 생산량을 뛰어넘는 생산성 향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은 대규모 투자 없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했다. 생산팀 김인호 팀장은 폴리브덴 생산량 증가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폴리브덴 생산량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약 10%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별도의 설비 투자 없이 생산성이 증가하는 결과를 이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년의 결과라기보다 그동안 누적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임을 강조했다.

Co-Work
팀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다

세아업적상 금상 수상팀 7명 모두는 수상 비결로 ‘협업’을 꼽았다. 생산팀과 설비관리팀의 협업이 없었다면,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입장을 이해하고, 의논하면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다.
이임규 주임은 설비가 증설되거나 바뀌면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각각의 팀원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처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며 ‘따로 또 같이’의 진가를 발휘했다고 말했다.
생산팀은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설비관리팀은 생산공정 개선을 목표로 업무

1 - 세아업적상 금상을 수상한 7명이 인터뷰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2 - 생산팀 김인호 팀장은 폴리브덴 생산량 증가량 추이를 설명했다.
3 - 인터뷰에 응하는 생산팀 이임규 주임

를 수행한다. 때문에 생산팀이 제작 공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내면 설비관리팀이 이를 구체화해 설비에 적용하고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생산팀 김인호 팀장은 “하나의 설비 개선으로 일관된 생산설비의 증산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일관된 생산 설비의 증산을 위해 팀원 모두가 고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과정에서 꾸준히 업무를 수행하고 따라와 준 동료가 옆에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팀워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Passion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가다

‘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고, 기업의 생명력은 개인의 열정으로부터 파생된 창조성과 상상력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조직의 성공과 실패는 열정이 넘치는 구성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열정으로 가득 찬 2018년도 세아업적상 생산부문 금상 수상팀의 수상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생기고,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게 됩니다. 이처럼 열정은 자가동력 장치인 셈이죠.”

설비관리팀 한상인 선임은 개개인의 열정과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서현 팀장은 열정적으로 임해준 모든 팀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팀원들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팀워크가 향상되었고, 타 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소통을 이뤘습니다. 무엇보다 목표 달성을 통해 성취감을 얻었고, 자신감과 애사심이 높아졌습니다. 설비관리팀 팀장을 맡은 저로서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세아 M&S는 올해도 목표 달성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갈 것이다. 생산팀 박규태 과장은 2019년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 중인 정광 리칭 설비 투자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

4 - 다단배소로 앞에 선 팀원들



‘베이스’

생산팀 이임규 주임

배소 파트에서 생산하는 폴리브렌 옥사이드는 제품을 만드는 기본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 팀이 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뿌리를 튼튼하게 해서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초’

설비관리팀 김서현 팀장

양초는 자신의 몸을 태워 불을 밝히고, 빛으로 주변을 밝혀 줍니다. 이처럼 회사에서 우리 팀이 헌신과 솔선수범해야 공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으므로 양초라고 생각합니다.



‘캐시카우’

생산팀 김인호 팀장

제품의 수익과 성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캐시카우’라 표현하고 싶습니다. 생산팀, 설비관리팀 등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가 제품을 더 많이, 더 좋은 가격으로 생산함으로써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key process’

생산팀 박규태 과장

모든 것의 시작이며 기본입니다. 회사의 근간인 생산라인이 튼튼해야 유기체로 구성된 회사의 모든 부서가 고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아 M&S에서 우리 팀은 000이다



‘기둥’

생산팀 박명호 선임

건축에서 기둥은 공간을 형성하고, 건물을 튼튼히 받치는 기본 뼈대입니다. 우리 팀도 회사를 탄탄히 만들고, 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 팀을 기둥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컬정’

설비관리팀 최낙동 대리

설비관리팀은 각 전공 분야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위를 막론하고 각자 맡은 업무를 열정을 다해 임합니다. 퇴근 후나 휴일에도 설비에 돌발고장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우리 팀원들이 업무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으로 푼돌 뭉쳐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다’

설비관리팀 한상인 선임

무엇인가 막혀있는 일이 있을 때, 시원한 사이다처럼 가슴을 뻥 뚫어주는 팀입니다.

세아인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조직생활, 자기 개발, 인간관계, 처세술, 진로고민, 외국 생활 등등 직장에서 겪는 세아인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세요. 13년 차 직장인이자 상담가인 최과장이 상담해드립니다. '최과장의 심리상담'에서 상담해줬으면 하는 주제나 고민거리가 있으면, 이메일(seah_family@naver.com)로 보내주세요. 익명성이 보장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 매달 3명의 고민이 실릴 예정입니다.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달 드릴 예정이니, 메일 하단에 성함과 휴대폰 번호 기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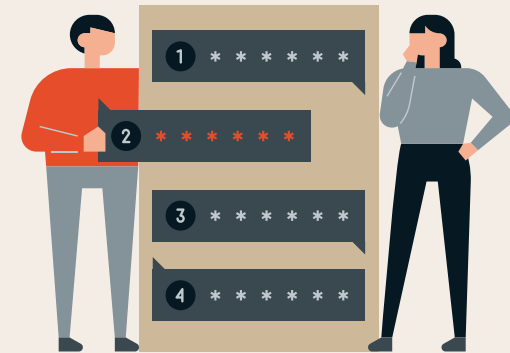
카운셀러 소개 | 최과장 (필명)

13년 차 현직 직장인이자 심리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석사 졸업 후, 심리학과 산업 및 조직 심리학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현재 브런치에서 최과장의 직장인 심리상담(<https://brunch.co.kr/@sogangbest>)을 연재하고 있다.

Q1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웃는 얼굴로 아무렇지도 않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늘 고민입니다. 초면인데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닮았다며 깔깔거리거나, 자신과는 다소 다른 점을 두고 특이한 사람으로 취급하면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무시당하는 기분도 들고 때론 상처가 됩니다. 또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찌하지 못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다른 사람 말에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한두 명씩은 꼭 있죠. 자신의 생각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다름과 틀림의 차이조차 이해 못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계속 상대해야 할 때면 정말 힘이 빠지죠. 때론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솔직히 말하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굳이 싫은 소리를 함으로써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차를 한잔 마시며 얘기를 나눠도 좋고 메시지를 보내도 좋습니다. '김 대리님, 죄송한데 나쁜 의도가 아니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외모에 대한 말씀은 안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빠집니다' '박 과장님, 그건 제 방식이니 존중해주세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별나다는 평가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고 말이죠. 외모에 대해 평가하거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발언은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만약 고민님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잘못된 그들의 발언을 무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언행과 나의 감정을 차단시키는 것이지요. 잘못된 그들의 행동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불편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Q2

직급에 비해 과중한 업무, 의지할 수 있는 선배가 절실합니다

저는 선배 없이 모든 업무를 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책보임자 아래 중간 직급이 없어 다른 팀원들은 모두 저와 같은 직급입니다. 그중 제가 가장 선임이다 보니 제 업무 역량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도맡아 곤혹스럽습니다.

가끔 힘들다며 고민을 토로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반응뿐입니다.

오히려 빨리 성장할 기회라며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지만 의지할 선배가 절실합니다.



A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말이 좋아 배울 기회죠.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든데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고민님의 솔직한 심정을 상사께 좀 더 솔직히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사실 회사에서는 자기 일이 아니면 남의 일에 그렇게 발 벗고 나서지 않습니다. 때문에 고민님의 현재 마음을 좀 더 깊이 있게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민님이 힘들어 지쳐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는 상황은 회사로서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상사에게 고민님의 솔직하고 명확한 마음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진심을 들은 상사분은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향식 반사실적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과거 정보를 처리

하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향식 반사실적 사고는 은메달을 딴 선수가 '금메달을 땀으면 좋았겠지' 하는 것이고, 하향식 반사실적 사고는 '그래도 은메달이라도 따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향식 반사실적 사고를 할 때 더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민님도 지금은 힘든 상황이지만 일단 좀 더 버텨보기로 했다면 이러한 하향식 반사실적 사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배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내 뒤에 콕 주임이 있잖아. 이 친구가 없었으면 더 힘들었을 꺼야' '물어볼 사람 하나 없지만 그래도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보다 한결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여유를 찾아가다 보면 당신에게도 분명 더 좋은 상황이 펼쳐질 거라 믿습니다.

Q3

선배와 함께 인정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4년 차 사원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가 전공과도 맞닿고 '이래서 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이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다 보니 바로 직속 선배인 대리님보다 저를 더 업무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대리님은 전공이 직무와 다르기도 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조금씩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대리님과 관계도 유지하면서 함께 인정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성취감이 들 정도로 신나게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마음은 불편하시군요. 본의 아니게 선배 대리님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말이지요. 이런 고민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유통업 기획 업무를 하다가 현장 영업 관리 업무를 처음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대리 3년차였지만 새로운 업무였기에 모르는 것 투성이었죠. 그런데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영업 쪽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셨는데요. 생소한 업무를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죠. 그러다 팀장님이 바뀌었는데, 기존 팀장님과 스타일이 많이 다른 분이래 많은 팀원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선배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그런데 저랑은 새로운 팀장님과 업무 스타일이 잘 맞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차츰 인정을 받아갔고 결국 제가 선배보다 더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과 선배에 대한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결국 그 선배는 퇴사했지만, 저와 그 선배는 마지막까지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저도 후회 없을 만큼 그 선배에게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배, 제가 보기에 그 방법도 좋지만, 이 방법도 팀장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선배에 대한 애정을 지속해서 표현했죠. 물론 선배 입장에서 후배에게 조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도움을 주려 애쓰는 저를 보고 선배 역시 제 마음을 알아줬을 거라 믿습니다. 고민님도 선배와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을 계속 표현해 보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잖아요. 적어도 고민님에게 아쉬운 마음은 남아 있지는 않도록 선배에게 함께 잘해보고 싶은 마음을 꼭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 역시 결국은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에서 둘, 둘에서 셋이 되는 기적

세아 L&S 군산영업팀 박성림 대리 가족

박성림 대리 부부는 2017년 전주 전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하나에서 둘이 되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둘에서 셋이 되는 기적을 이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나섰다.



부부의 추억이 담긴 전동성당

세아 I&S 군산영업팀에 근무하는 박성림 대리 가족이 세아 패밀리의 첫 인터뷰이로 선정되었다. 그들이 고른 촬영지는 전동성당. 부부가 결혼식을 올린 곳이자 웨딩 스냅 사진을 촬영한 곳이다. 박 대리는 과거 이곳에서 스냅사진을 촬영한 이유를 들려주었다.

“결혼 준비하면서 청첩장만큼은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직접 디자인하기로 했고, 청첩장에 실는 사진 역시 특별하게 찍고 싶었죠. 그래서 전주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스냅사진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이영신 씨에게도 전동성당은 특별한 곳이다.

“남편이 성당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 데이트를 하다가도 토요일 5시가 되면

성당에 가곤 했어요. 연애 시절 남편의 이런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저도 결혼하기 전에 세례를 받아 전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부부는 무엇보다 전동성당의 아름다운 전경에 반해 다른 곳은 생각하지 않았으며 입을 모았다. 그리고 이곳 전동성당에서 다시 한번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어 세아 패밀리 코너에 참여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촬영이 이뤄진 1월의 어느 날. 날씨가 유독 쌀쌀했지만, 부부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었다. 스냅 촬영 때도 추웠으며 박 대리는 당시를 회상했다.

“아내가 평소 사진 찍는 것을 별로 즐기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진작가가 동생의 친한 친구라 더 어색해했죠. 그날도 무척 추웠는데 맘을 뻔뻔 흘려가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전동성당이 워낙 유명해 아침 일찍부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근처 남부시장에서 먹었던 콩나물국밥이 아직도 생각합니다. 만약 전주에 놀러 오신다면, 콩나물국밥을 무조건 추천합니다.”

촬영 내내 부부는 서로를 챙기고 배려했다. 이들에게 서로는 어떤 존재일까? 박 대리는 아내를 ‘엔도르핀’에 비유하며, “아내는 제게 활력소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고, 제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도 웃음 짓게 만드는 사람이지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항상 사랑받는 남편임을 느끼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도 함께 전했다. 영신 씨는 남편을 ‘큰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비가 오면 비를 피하게 해주고, 햇빛이 강하면 넓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큰 나무처럼 남편은 항상 그 자리에서 저를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항상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

과거 사진과 현재 모습을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박성림 대리는 과거 사진 속 인물이 두 사람이었다면, 현재는 두 사람처럼 보이는 세 사람이 있다며 웃음을 지었다.

“현재 아내의 뱃속엔 5개월 된 예쁜 아기, 병글이(태명)가 크고 있습니다. 2년 사이에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식구까지 생겼죠. 아내는 임신했지만 제 눈에는 크게 변한 점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 후 얼마나 행복한지, 몸무게가 15kg 이상 늘어나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영신 씨는 평소 사진 찍는 것을 즐기지 않지만, 세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는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남편의 권유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2년 후, 아이와 같이 패밀리룩을 입고 전동성당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연인에서 부부로 부부에서 부모로, 새로운 식구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박 대리 가족. 황금돼지의 좋은 기운을 받은 병글이가 씩씩하고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란다. ♡

- 1 - 전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린 박성림 대리 부부의 본식 사진 (2017)
2 - 과거를 회상하며 사제관 앞에서 다시 찍은 부부의 사진 (2019)



엇갈린 두 개의 날이 창조하는 일상

가위



가위는 의식주를 아우르는 도구다. 가축과 천을 재단하고, 식물을 보살피고, 열매를 채취하며 털을 다듬는다. 이토록 용도가 다양하지만 엇갈린 두 개의 날을 지레의 원리로 움직이는 형태는 참으로 일반적이다. 가위의 역사를 거슬러 가도 대체로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정된 형태 내에서도 가위는 끊임없이 혁신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도구 열전> 칼럼에서는 가위 이야기를 시작으로, 손톱깎이, 스테이플러, 면도기 등 철로 만들어진 다양한 도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위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현재 발견된 유물 중 가장 오래된 가위는 기원전 1,000년경 그리스에서 만든 양털 가위다. 축을 중심으로 날이 교차된 형태가 아닌, 한 개의 다리를 U자로 구부려놓은 모양을 띤다. 문헌에 기록된 바로는 기원전 1,300~600년경 바빌로니아 문헌과 구약성서에 등장한 것이 최초다. 모양에 대한 언급은 없고 양털을 자르는 데 쓰며 재료가 철이라는 것만 알 수 있다. 동양에서는 중국 전한시대의

것이 가장 오래됐다. 동서양 모두 적어도 고대부터 가위가 존재해온 셈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가위는 경주 분황사 석탑에서 발견된 신라시대 가위다. 원래 가위는 주로 재단이나 이발, 의료용 등 제한된 용도로 사용됐으며 지금처럼 일상적인 도구는 아니었다. 수작업으로 소량만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재단용 가위 등은 주로 가위 모양의 틀에 쇳물을 부어 만들었다. 최고급 가위의 공정은 더 복잡했다. 대장간의 화로 속에서 철을 가열하고, 달궈진 철을 두드려 날을 만들고, 손잡이의 탄성을 만들어내며 가위의 용도를 상징하는 다양한 디테일을 새겨 넣기도 했다.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X자 형태 가위는 서기 100년경 고대 로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중세 말까지 손잡이 부분에 용수철이 연결된 스프링 가위가 보편적으로 사용됐다. 양날의 움직임이 좀 더 효율적인 X자형 가위가 대세가 된 것은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다.

가위를 뜻하는 영어 Scissors는 고대 로마 명장 가이우스 줄리어스 시저(Gaius Julius Caesar)가 어머니의 배를 가르고 태어난 데서 유래했다. 그리스 신화에서 운명의 여신이 물레로 실을 만들어 인간에게 나눠주는데, 이때 실은 운명을 뜻하고 이 실을 끊는 가위는 죽음을 뜻한다. 일상을 넘

어 예술가들의 손에 들린 가위는 속박된 운명을 끊어내고 창조력을

뽐내기도 한다. 코코 샤넬은 거추장스러운 드레스 대신

여성을 위한 승마복을 재단했다. 남자의 넥타이를 잘라

리본을 만들어 셔츠 깃에 달았다. 앙리 마티스는 말년에 결

장암 수술을 받은 후, 여든 네 살까지 13년 동안 침대에 누워 지낸

시기에 가위로 종이를 오려 캔버스를 채웠다. 콜라주 기법의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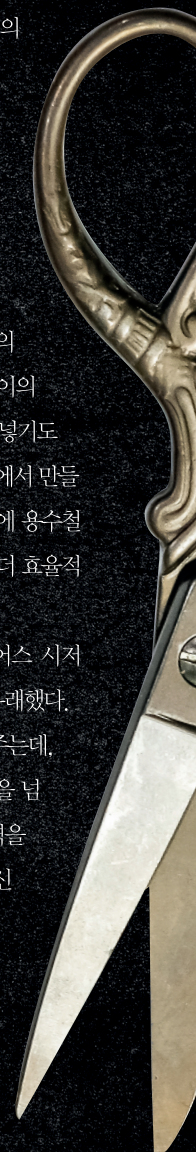
초의 연작인 '푸른 누드(Nu Bleu)' 네 편과 색종이 그림의 기

념비적 대작이라 불리는 '왕의 슬픔(La tristesse du roi)' 등

이 탄생했다. 철로 빚어낸 가위를 가만 들여다보면 이 풍부한 이야

기만큼이나 그 조형미가 독특하고 아름답다. 일상을 넘어 예술을 창조하는

이 특별한 도구로 당신은 오늘 어떤 일을 했는가? ●





세아 뉴스

세아베스틸 | 2018년 연말 이웃돕기 성금 기탁

12월 27일, '2018 연말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이 군산시청에서 열렸다. 이날 기탁식에는 강임준 군산 시장을 비롯해 김태완 노동조합 위원장과 송영환 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웃돕기 성금에는 임직원 1,400여 명이 동참했고, 군산사랑상품권(4,255만원 상당)을 모금해 전달했다. 세아베스틸은 2012년부터 군산시와 지역복지 나눔 실천 협약을 통해 복지시설 및 복지 소외계층에게 후원해왔으며, 지난해 임직원 성금 포함 약 2억5천만 원 상당의 물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세아창원특수강 | 2019년 세아창원특수강 신년 인사회 개최

1월 3일, 창원 리베라 컨벤션에서 세아창원특수강 신년 인사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세아그룹 신년회 상영 영상과 세아창원특수강의 1년간 활약상을 담은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이지용 사장의 환영 인사, 이상은 부사장의 건배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지용 사장은 신규 직책 보임자와 승진자들을 격려했고, 임직원 간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세아특수강 | 충주공장 가상화재 소방훈련

12월 5일, 세아특수강 충주공장은 화재 대응 매뉴얼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충주소방서와 합동하여 가상화재 소방훈련을 시행했다. 이날 훈련은 기존의 형식적인 소방훈련에서 벗어나 실질적 대비체계 구축을 위해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 최소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실전과 유사한 환경에서 재난 상황을 신속히 진화하는 훈련이 진행됐다.



세아씨엠 | 상반기 헌혈 봉사활동 실시

1월 16일, 세아씨엠은 상반기 헌혈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단체 헌혈 의존도가 높고, 겨울철에는 헌혈자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해 세아씨엠 임직원들은 추운 날씨에도 헌혈 행사에 적극 참여했다. 세아씨엠 관계자는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해 기쁘고, 하반기에도 헌혈 봉사활동을 하며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아 M&S | 2019년 기해년 시무식

1월 2일, 세아 M&S는 여수공장에서 기해년 시무식을 진행했다. 마정락 대표이사는 회사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모든 노고를 아끼지 않은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또한 2019년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속성장을 위한 8대 중점추진과제를 실현함으로써 미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초를 확고히 다질 것을 당부했다.



세아메탈 | 사랑의 나눔 라면 기탁

12월 20일, 세아메탈 원주공장 임직원 일동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내 소외되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나눔 라면' 125박스를 문막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세아메탈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더욱 힘쓰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자 엽서

세아 가족 여러분이 지난 11+12월호 <세아가족>을 읽고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입니다. 독자엽서는 이번 호를 끝으로 마감합니다. 그동안 독자 엽서를 응모해주신 세아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새롭게 운영되는 '내 반려 동물을 소개합니다(내동소)' 코너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지 채용 세아인 본사 방문'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지도 현지 채용 세아인이라 공감 가는 내용이 많았고,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근무 중인 현지 채용인들을 사진으로나마 접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올해에는 미국에 근무 중인 현지 채용인들도 본사에 방문할 기회가 생기길 희망합니다.

SeAH Global Inc. 이성은

'세아 뮤지엄'이라는 칼럼에서 예전 사보에 실렸던 내용을 들춰보는 형식이 매번 새롭게 다가옵니다. 과거 사보에서 직원들에게 응원했던 문구를 보면 현재도 몽글하고 강조하거나 비판했던 부분은 다시 보고 새삼 일깨울 수 있던 것 같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경기 평택시 지산천로 정다솜

찬바람에도 끄떡없이 훈훈한 가족애가 느껴지는 원데이 클래스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치베를 목도리 뜨개질 체험 후기를 보면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목도리, 우리 가족만의 목도리를 만들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고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대전 중구 서문로 정경석



세아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이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따뜻한 사랑과 희망을 나누어주고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나눔세아 캠페인>을 통해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아가 있어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경기 김포시 통진읍 울마로 박성목

아름다운 세아 코너에 나온 성현이에 대한 이야기를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세아인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웃음을 잃어버린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함과 동시에 기부의 보람을 느끼고, 많은 분으로 하여금 동참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캠페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서울 성북구 종암로 유재범





사우 동정

세아제강지주/세아제강



정다솜 STS수출팀

고영진 창원공장 감사반



이창근 영남영업파트

최일규 호남영업팀

최진희 포항공장 물류팀



계일강 인사팀(부친)

김주경 영남영업2파트(부친)

임창석 영남영업파트(모친)

이창근 영남영업1파트(빙부)

송경석 생산계획팀(빙부)

임상원 포항공장 물류팀(빙부)

이명철 포항공장 생산팀

소경1공장(빙부)

세아베스틸



김선조 압연설비팀



홍성수 구매1팀



문세국 제강팀(부친)

문영국 품질보증2팀(부친)

문순식 단조설비팀(모친)

손양근 제강팀(빙부)

박병도 인재개발팀(빙부)

김기덕 제강설비팀(빙모)

세아창원특수강



이준범 대형압연팀

정성호 2제강팀

김재형 대형압연팀

전영은 영업기획팀



김병년 가공팀(부친)

남현기 설비지원팀(부친)

변상욱 품질보증팀(부친)

정종근 3제강팀(부친)

정연욱 강관팀(모친)

김상한 소형압연팀(모친)

차종갑 소형압연팀(모친)

권세일 대형압연팀(모친)

남성열 강관팀(모친)

김성준 강관팀(빙모)

공인배 3제강팀(빙모)

조원제 생산관리실(빙모)

세아특수강



정연호 포항 품질보증팀

문진우 포항 생산팀

이진용 충주 생산팀

류성문 충주 품질보증팀

유예림 충주 안전환경물류팀

조정민 서울 수출팀



원도희 포항 생산팀(빙부)

세아씨엠



고현진 판매기획팀

신수민 수출팀

세아 ESAB



임옥식 생산팀(모친)

세아메탈



전병권 경영기획팀



전병권 경영기획팀

방병진 원주 품질팀

한태규 원주 품질팀

세아 FS



신경철 생산관리팀

김한별 업무지원팀

세아 M&S



김하형 생산팀

이현영 생산팀

이지웅 생산팀

이석찬 생산팀



강원철 설비관리팀



이중기 생산팀(부친)

세아 L&S



유나경 판매영업2팀

세아엔지니어링



설규철 영업팀

유진혁 영업팀

소병오 구매팀

강민규 구매팀

송인용 품질보증팀

송태호 개발2팀



박수정 생산팀



정성윤 비상용발전기팀

윤웅기 영업팀



박경도 품질보증팀(빙모)

세아네트웍스



임진택 SM2팀(부친)



내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우리 집에 특별한 동거인이 있다? 강아지, 고양이, 장수하늘소, 하늘다람쥐, 이구아나 등등.

세아 가족에게 자랑하고 싶은반려동물의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매 호 한 분의 사연을 선정해, 반려동물용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세아제강 STS수출팀 송정현 사원

함께 자라온 저의 오랜 친구,
'로또'를 소개합니다

- 견종 : 시츄 🐶
- 성별 : 남아 ♂
- 좋아하는 음식 : 고구마 🍠



로또와의 첫 만남은 중학생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친구를 처음 집으로 데려오는 길, 우연히 제 눈앞에는 '로또' 간판이 보였습니다. 우리 집에 행운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에 로또라 이름 붙여줬고, 벌써 16년이 흘렀네요. 그동안 저와 로또는 친구처럼 함께 자라왔습니다.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때론 보고 싶었다가 귀찮기도 했다가 애증의 관계였죠.

제 나이가 어느덧 서른 하나. 자연스레 로또는 노견이 되어 잔병치레가 많아졌습니다. 아직도 제 눈, 제 마음에는 어린 모습으로 남아 있는데 노견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함께 보낸 시간보다 혼자 둔 시간이 많은 것 같아 벌써 후회가 되려고 합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앞으로 로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어요. 제 욕심인 줄 알지만, 로또가 건강하게 오랜 시간을 잘 버텨주길 바랍니다.

📌 '내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응모 방법

- 1 반려동물과 얹힌 에피소드를 8~10줄 내외로 작성한다.
- 2 반려동물이 잘 나온 사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2~3장(1MB 이상) 고른다.
- 3 매일에 사연과 사진을 첨부하고, 개인 정보(소속, 직책, 이름)와 반려동물 정보(이름, 종류, 나이)를 함께 기재해 커뮤니케이션팀 이유킨 매리(yujin.lee@seah.co.kr)에게 보낸다.

📌 1+2월호 선물

BONDI WASH
드라이 도그 워시

